

2024년 경기문화예술교육 2차 통합공모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공연예술분야]

심의총평

<2024년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향유권 실현을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첫 시행인 만큼 아직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기관은 해당 기관이 겪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 정도로만 이해하고 접근한 경향이 다분해 보여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엿보였다.

심의는 지원서류와 현장실사 및 인터뷰 심의를 걸쳤으며, 사업이해도,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기획력, 사업수행역량 등을 심의기준으로 하였다.

본 지원사업을 발판 삼아서 교육과 발표회의 전 과정에서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경험의 제공,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와의 협업,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기관도 있어서 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 기관의 고유한 특색과 프로그램상의 특징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재단 측에서는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교부신청 이전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기회(워크숍 등)를 반드시 제공해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에 부합한 사업운영을 이끌 필요가 있다.

심의 전 과정에서의 아쉬움은 많았으나, 본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인 '학교 밖' 아동·청소년, 즉 그중에서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새로운 지원 주체를 발굴한다는 것에는 큰 의의가 있었다. 다만, 선정된 기관들의 열정과 실행과정,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교육현실의 개선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2024. 6. 3.

심의위원 변희정, 김남수, 김자현, 윤종필

2024년 경기문화예술교육 2차 통합공모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기타분야]

심의총평

<2024년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올해 신설된, 경기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다. 도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심의위원들은 충분히 못한 예산이겠지만 매우 의미 있는 교육사업으로 판단하며, 이번에 기타(문학, 시각, 융복합) 부문에서는 3개 지역의 시도 대안교육학교를 선정하였다.

우선 심의의 방식은 <서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인터뷰 심의> 및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심사 기준은 사업 이해도, 실질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기획력, 사업수행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서류에 표현되지 않았거나 다소 부족해보이는 내용은 현장 인터뷰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의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의견차이를 보인 4인의 심의위원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심의위원들은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롤모델이 될 대안학교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기존의 학교프로그램을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웠으며, 전문예술가 인력 풀의 경우도 상당부분 채워지지 못하여 이전의 교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등 전문성에 있어서 다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정된 대안학교는 예술교육을 제공할 전문 예술가 데이터베이스를 경기문화재단과 상호교류하여 우수하고 젊은 지역 예술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사업비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새로운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추가하여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라면, 선택과 집중으로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을 예각화하여 진행하길 바란다.

더 많은 대안학교를 선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며, 심의위원들은 선정된 기관에 거는 기대가 크다.

2024. 6. 4.

심의위원 전해수(전영주), 박찬영, 손택수, 유유미